

# 나주 혁신도시 정주여건 사업 '척척'

### 아파트 등 5400여세대 착공 4개 학교 공정률 30% 순조 보건소·도서관도 내년 준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사업이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4년말까지 15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나주 혁신도시의 아파트, 학교, 시청 출장소 등의 정주여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우선 주택 공급은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아파트 4252세대, 오피스텔 1227세대 등 총 5479세대가 착공 중이고 단독주택 허가도 진행 중이어서 수요에 따른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학교는 201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4개 교가 올해 초 공사를 시작해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내년 개교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서비스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내버스는 출·퇴근 시간

에 맞춰 1일 광주방향 11개 노선 28회, 나주 방향 12개 노선 27회가 운행된다. 여기에 지난달 19일부터 광역대중교통 환승제가 시행되면서 광주~나주 간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환승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을 왕래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위해선 KTX 정차와 고속버스 운행 증차를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의료 서비스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현재 우정사업정보센터와 5분 거

리에 내과, 외과, 신경외과, 한방과 등을 진료하는 290병상의 병원이 있고 혁신도시와 10분 거리의 나주시내에도 50여개의 개인병원이 있다. 혁신도시 내 대형병원 건립도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입지를 논의 중이어서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내 편의 공공시설인 시청 출장소와 보건소, 도서관, 복합문화체육센터 등은 2014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과출소와 소방서는 개청 전까지 임직원들의 치안유지를 위해 산포파출소와 남평119안전센터에서 인력을 보강해 순찰을 강화

하고 있다. 일반 상가가 점차 입점 중이다. 현재 5건의 상가가 영업중이고 13건이 착공 중이다. 대형마트는 본사 관계자들과 입점을 협의중이며 조만간 입점하는 마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설동진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첫 입주기관이다보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안전지킴이 'CCTV관제센터'

### 폭행·절도·교통사고 등 장성, 울들어 104건 처리

장성군 CCTV통합관제센터가 각종 사건사고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안전지킴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장성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재해예방, 학교 내 안전 등 목적별로 분산 운영하던 CCTV 393대를 통합해 경찰과 전문 모니터링 요원 22명이 상주하며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는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 924명을 초대해 범죄예방 교육과 자기집 주변 CCTV 확인, 위급시 비상벨 호출서비스 등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관제센터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안전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부모와 다투고 가출한 중학생의 위치를 확인해 안전하게 귀가시켜 청소년 위험사고 예방에 기여하기도 했다. /정성=김용희기자 yongho@

이해 앞서 지난 6월 10일에는 삼계면 상무아파트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레미콘차량이 정면 충돌한 사고를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해 상황 발생 2분 만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조했다.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장성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재해예방, 학교 내 안전 등 목적별로 분산 운영하던 CCTV 393대를 통합해 경찰과 전문 모니터링 요원 22명이 상주하며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는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 924명을 초대해 범죄예방 교육과 자기집 주변 CCTV 확인, 위급시 비상벨 호출서비스 등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관제센터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안전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부모와 다투고 가출한 중학생의 위치를 확인해 안전하게 귀가시켜 청소년 위험사고 예방에 기여하기도 했다. /정성=김용희기자 yongho@

### '노틀담의 곰추' 무료공연 오늘 오후 담양 문화회관

뮤지컬 '노틀담의 곰추' 공연이 22일 오후 7시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 협회가 주관한 2013년 지방문화회관 공연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에 담양군이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뮤지컬 '노틀담의 곰추'는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담'을 N.A 뮤지컬컴퍼니가 각색한 것이다. 평작을 쉽게 접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원작의 휴머니즘과 낭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화합과 자유, 우정에 대한 메시지를 작품에 녹여냈다. 담양군 관계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뮤지컬 공연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관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관람을 당부했다. 이밖에 코리안 뮤지컬페스티벌은 9월 13일, 책임어주는 조바니의 카르멘은 11월 8일 담양에서 공연을 갖는다. /담양=정재근기자 jzg@



## 먹이사냥 나선 백로 떼

### 산간 오지 가뭄지역 식수지원

수자원공사 서남권관리단 K-water 전남서남권관리단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흥담 주변지역에 식수를 지원하는 등 구조할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부근 배진강 저수지에서 21일 먹이사냥에 나선 백로 떼가 연일 위에 앉아 물 밑으로 지나다니는 물고기를 잡느라 부산하다. (강진군 제공)

동을 펼치고 있다. 수공 서남권관리단은 지난 20일 지하수와 계곡수에 식수를 의존하고 고갈된 장흥담 주변 산간 오지마을인 유치면 봉덕리 마을에 식수 30t을 공급했다. 수공은 현재 상수도물 공급을 받지 못한 유치면 10개 마을 500여세대(1300여명) 주민들에게도 비상식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영환 전남서남권관리단장은 "가뭄으로 고통받는 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비상 식수공급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는 담 주변 주민들을 위한 복지후생 분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장흥지역 강우량은 지난해 1416mm의 절반 수준인 754m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김용희기자 중부취재본부장

## 백중맞아 남원서 '삼동 굿놀이' 재연

〈전통 세시 풍속놀이〉  
당산제·지네밧기 등 열려  
풍년농사 기원·주민 단합  
음력 칠월 백중(百中)인 21일 전북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에서 전통세시 풍속놀이인 삼동(三童) 굿 놀이가 재연됐다. 남원 삼동굿놀이 보존회가 주관한 재연행사는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주민단합을 위해 열리는 남원지역 대표적 민속놀이이다. 이날 보존행사는 당산제를 필두로 기세배, 당산굿, 지네밧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고려 말 마을이 형성되면서 시작된 삼동 굿놀이는 마을 뒷산인 계룡산(담)과 앞산인 약산(지네)이 남북으

## 부안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총력

우동·계화도 등 4개권역 217억 들여 개발사업 추진  
부안군이 농·산·어촌다움을 유지·보전해 자생적인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우동·계화도·내소사·청호 등 4개 권역에 총 217억원을 들여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비롯해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

## 전주시, 영무예대음 3.3㎡당 685만원 결정 통보

전주시는 (주)영무건설이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평균 685만원 미만으로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영무건설이 영무예대음 33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신청한 분양가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결과를 회사에 통보

## 남원시, 주생면 일반산단지구 허가구역 해제

남원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주생면 일반산단지구 조성 예정지구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남원시는 21일 "주생면 지당·정송·영천리 일대 590필지 150만80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일반산단지구의 원활한 사업

## 남원 공설시장에 도깨비장터 선다

24일 처음 열려... 문화공연 관람도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손꼽히는 남원 공설시장에 도깨비장터가 선다. 남원시는 21일 "2013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공설시장을 문화와 관광이 조화된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해"고 밝혔다. 도깨비장터는 오는 24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장날인 4일과 9일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다. 도깨비장터에서는 상인들로부터 수거한 식료품과 공산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팔기로 판매하고,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현장에서는 사회적기업 한울누리가 국악공연을 펼치고, 예술작가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나무반지 만들기·액자 꾸미기·유리병 캐리커처 그리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영식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은 "도깨비장터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새로운 장터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레미콘 차까지 동원 '폭염과의 전쟁'

남원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최근 레미콘 차량 등을 동원해 관하루일 앞 등 주요 도로에 물을 뿌려 더위를 식혔다. (남원시 제공)

## 순창, 내달부터 강천산에 숲 해설사 배치

순창군 강천산에 9월부터 전문 숲 해설사가 배치된다. 군은 21일 "강천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숲 해설사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숲 해설사는 코스개발, 숲 해설자의 모니터링, 숲 관련 캠페인 등을 통해 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나무와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인 산림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단체로부터 숲 생태체험학습 진행에 대한 의뢰가 오면 숲 해설을 맡게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 군산역사박물관, 경술국치 103주년 기획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21일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올해 세 번째 기획전인 '경술국치 103주년 추념 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 날을 목 놓아 통곡하노라'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에선 각종 유물과 문서 등 100여점의 자료가 선보인다. 전시는 '제국의 멸망', '폭력과 저항의 기억', '조선은 병참기지', '광기의 종말', '수탈과 저항의 도시 군산' 등 5개 테마로 꾸며졌다. 박진석 박물관장은 "기획전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가 경술국치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